

## 어버이주일

김 일 현(목사, 경기 양평 국수교회)

본문 : 막 7:9-13

제목 : 핑계대지 맙시다

“또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유전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비나 어미를 훼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가로되 사람이 아비에게나 어미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제 아비나 어미에게 다시 아무 것이라도 하여 드리기를 허하지 아니하여 너희의 전한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은 ‘효’를 그 바탕으로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을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지켜야 할 첫 번째 계명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또 이 계명에는 그냥 흘러버릴 수 없는 너무 소중한 약속까지 함께 주셨습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출 20:12)”. 그러니 어떻게 효를 기독교 신앙의 기본정신이라고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물론 기독교외에 효를 강조하는 사상이나 타종교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처럼 부모공경을 엄하게 명하는 말씀은 어디에서도 듣기가 어렵습니다. “또 아비나 어미를 훼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 얼마나 엄청난 선언입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며 ‘반드

시 죽으리라' 하실 정도로 용서받지 못할 죄가 바로 자기 부모를 훼방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이유, 어떤 핑계를 대더라도 효를 행치 않는 죄를 합리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인지 우리 주변에서 “예수 믿는 사람은 제 부모도 모르는 사람들”이라는 소리가 공공연히 나돌고 있습니다. 물론 이 말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지 않는 것 때문에 나왔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러나 이유가 정말 그것 때문만 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비록 돌아가신 분을 위해 제사는 지내지 않더라도 살아 계신 부모에게 성심껏 효를 행했다면, 그래도 과연 이 말이 나오게 됐을까요? 제사 지내는 그 정성만큼만 살아 계신 부모를 공경했다면, 그래도 정말 세상 사람들이 이런 말들을 했겠습니까? 예수 믿는다는 핑계로 세상 사람들이 목을 걸고 매달리는 제사를 팽개쳐버리고, 살아 계신 부모에게도 특별히 효를 행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았기에 이런 말을 듣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또, 열심히 믿는다는 사람들 중에는 가정을 잘 돌보지 않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이 마치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듯 합니다.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마 10:37)는 말씀을 내세워 가정을 소홀히 하는 것을 정당하게 여기는가 하면, “너희 부모를 주안에서 순종하라(엡 6:1)”고 하셨기에 자기 신앙생활에 지장이 되면 부모에게도 순종할 필요가 없다는 식으로 자신의 불효를 합리화시키기도 합니다.

사실 이 말은 남 이야기가 아니라 제 자신의 고백입니다. 목회자가 되겠다고 일찍부터 서원을 한 사람이었기에 어려서부터 아예 교회에 나가 살면서 나는 정말 주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여겼습니다. 신학을 마치고 첫 목회지에 부임한 후에는 교회 일이 너무 바쁘다는 핑계로 아예 부모님을 찾아 뵈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니다. 한번은 자정도 넘은 시각에 집에 들어가니까 메모 쪽지 한 장이 덩그러

니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기다리다 못 보고 그냥 간다”

달이 바뀌고 해가 바뀌어도 얼굴 한번 내밀지 않는 못된 아들을 찾아오셨다가 그냥 헛걸음만 하고 돌아가신 겁니다. 양평에서 청주까지 차를 몇 번씩 갈아타며 힘들게 오셨을 텐데, 텅빈 집만 지키다가 그냥 돌아가신 부모님을 생각할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던지요? 제가 비록 하나님을 섬기는 종이라 하지만, 정말 부모님 한번 찾아 뵙지 못할 만큼 그렇게 바빴을까요? 그리고 제가 주님을 위해 산다며 들고 댄 것이 과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은 저 같은 사람이 들어야만 될 주님의 책망입니다. ‘고르반’ 즉 하나님께 드렸기에 아무리 부모라 해도 어쩔 수 없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한 주님의 책망입니다. 말아야 좋지요. 하나님께 드렸다는데 어느 부모가 댄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잘 했다” 그러고 말아야지요.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께 바쳤기에 부모에게는 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핑계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이 당시에는 ‘고르반’이라는 말이 공공연하게 악용이 되고 있었던가 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무엇을 요구하면 “그건 고르반입니다” 라고 하면서 부모의 요구를 거절합니다. ‘고르반’이라는 말 앞에서는 부모도 더 이상 어쩔 수 없다는 것을 아니까요. 하지만 ‘고르반’이라는 말이 진짜 하나님께 바쳤다는 말은 아닙니다. 어차피 아내의 서원은 남편이 동의를 안해주면 무효가 되기 때문에(민 30장) 부모의 요구를 거절하기 가장 좋은 구실로 삼곤 했던 것입니다.

물론 요즘 성도들 중에 이런 고약한 사람들이야 없겠지요. 하지만 우리도 모르는 중에 동일한 죄를 범하고 있지는 않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 마을에도 외롭게 고향을 지키며 사시는 노인들이 많이 계십니다. 고작 1년에 한두 번, 명절 때면 엮어지듯 왔다가 부랴부랴 돌아가는 자녀들을 해바라기처럼 기다리며 살아가십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제일 찾아오지 않는 사람들이 교인들이더군요.

특히 신앙 생활을 열심히 한다는 사람들일수록 교회 일이 바쁘다는 이유로 잘 찾아오지를 않습니다. 매일같이 교회에 나가 살아야 하니 부모님 찾아볼 시간이 없지요. 얼마나 충성된 종입니까?

그러나 주님이 과연 잘했다 칭찬하실까요? 그러다 부고(訃告)를 받고서야 허겁지겁 뛰어와, 하늘나라 가서 잘 사시라고 찬송만 부르고 서 있으면 좋은 믿음입니까? 물론 주님을 위한 일을 최우선으로 삼으며 사는 것이 성도의 자세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부모에게 대한 자녀의 도리를 소홀히 해도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신앙생활이 불효의 핑계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사람이라 해도 TV 볼 것 다 보고, 친구들 다 만나고 다니지 않습니까? 부모님 이야기만 나오면 갑자기 바빠지는 것은 아닌지요?

또, 성도들은 헌금을 드려야 하기 때문에 부모님께는 드릴 수 없다고 말해서도 안됩니다. 물론 뼈뺀 살림에 믿음으로 십일조를 바치는 것은 훌륭한 믿음입니다. 그리고 나면 정말 먹고살기도 힘든 가정이 적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정말 헌금을 해야 하기 때문에 부모님 용돈도 드릴 수 없습니까? 부모는 자녀를 위해 모든 것을 다 주시지 않았습니까? 밤마다 꿈꿨으면서도 지금도 밭에 나가 농사지어 바리바리 싸다 주시는 것이 부모님 아닙니까? 그런데 자녀들은 이것저것 다 쓰고 남아야 부모님께 드리려 합니다. 아이들에게는 아무리 수십 만원, 수백 만원 하는 물건이라도 필요하다면 척척 사주면서, 부모에게 드리려면 갑자기 살림이 궁색해지는 것은 아닌지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기에 더욱 부모를 잘 섬겨야 합니다. 부모 섬기기를 하나님 섬기듯 해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찌 사랑할 수 있느냐고 주님이 묻지 않으시던가요? 하물며 나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신 부모님도 공경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부모님은 내게 있어 보이지 않는 창조주의 하나님의 그림자입니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도구이며, 가장 하나

님 님은 사랑의 실체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주일을 지켜 예배드리러 나아오듯, 일 주일에 한번 전화로라도 안부를 묻는 일을 할 수 없을 만큼 바쁜 사람들이 있습니까? 친구 한번 덜 만나고, 이웃 만나 수다 한번 덜 떨더라도 부모님을 찾아뵙는 것이 바른 신앙생활 아닐까요? 세상의 모든 자녀는 아무리 애써도 다 갚지 못할 사랑의 빚진 자들입니다. 부모님은 부지런히 찾아뵈려 해도 그 날이 많지 못할 분들이십니다. 떠나신 후에 '부모'란 말만 들어도 가슴이 저릴 아픔을 키우는 어리석은 사람들은 되지 않아야 합니다.

나는 또한 하나님께 십일조가 아닌 십의 삼조를 드리는 운동을 펼쳤으면 합니다. 하나님께 드릴 십일조와 함께 친가와 외가에도 소독의 십일조를 헌금하는 마음으로 보내드리는 성도들이 되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뭘 먹고살란 말이냐고 물으시겠습니까? 우리가 할 마음조차 먹지 않아서 그렇지, 내가 믿는 하나님은 베풀고자 하는 자에게 베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물며 부모를 섬기고자 하는 자에게 왜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지 않겠습니까?

또한 이렇게 부모를 섬기는 것이 결국은 자신도 위하는 일이 됩니다. 제 자식은 금쪽같이 떠받들면서 부모를 외면하면, 자녀들이 우리보고 고맙다고 할까요? 그들 역시 나중에 부모는 나 몰라라 하고 제 자식만 아는 사람들이 되고 말 것입니다. 하지만 어려운 중에도 부모를 봉양하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고 자녀들이 자란다면, 그들 역시 후에 제 부모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신앙교육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바빠서 부모를 섬기지 못하지만, 너희는 부모를 잘 섬기라고 가르칠 수는 없다는 것을 저는 뒤늦게나마 알았습니다. 말로 설교하지 않아도 내가 부모를 섬기는 본을 보인다면, 그것이 가장 바른 설교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도 제 자신이 한심스럽습니다. 바로 옆에 모시고 살지만 내가 한번 찾아가는 동안에 부모님은 내게 열 번을 찾아오시니 말입니다. 아이들에게도 학교 가고 올 때마

다 들러 인사를 드려라 말하지만, 정작 내가 그리 하지 않으니 우리 아이들 역시 발걸음이 뜸하기만 합니다.

그래 '내리 사랑'이라 하는 모양이지요? "네 자녀를 사랑하라"는 말씀은 없는데,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은 약속과 함께 주셨으니 말입니다. 하지만 부모 역시 자녀들이 자신을 공경하도록 가르치는 일에 힘을 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자신이 대접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길이 바로 자녀들이 하나님께 복 받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고르반'이라고 핑계를 댈 때, 부모라고 그 눈치가 없었겠습니까? 부모이기에 알면서도 모른 척 할 수밖에 없었겠지요? 그러나 그런 묵인과 양보가 오히려 제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패역한 사람들로 만든 결과가 되고 말지 않았습니까? 부모를 공경하도록 교육하는 일도 신앙 안에서 부모들이 해야 할 중요한 사명 중의 하나입니다.

제가 잘 알고 지냈던 한 권사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분은 어린아이들에게 먹을 것을 사주시고는 아이들에게서 한두 개라도 꼭 도로 얻어먹고야 마는 이상한 오기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나도 먹고 싶은데 하나만 다오" 하면서 줄 때까지 집요하게 요구를 하시곤 했습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아이들 손에서 뭘 얻어먹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일단 주고 나면 끝인데, 매번 주고 나서 얻어먹느라고 애쓰시는 모습이 얼마나 안되었던지. 그래 제가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니, 저러실 거면 아예 던져놓고 주시지, 왜 다 쥐놓고 매번 저 고생을 하시나?"하고 말입니다.

그런데 권사님이 이유를 말씀해 주시더군요. 이렇게 해야 어린아이들이 제 입만 입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다고요. 내가 먹고 싶은 것은 남도 먹고 싶어한다는 것을 알아야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 되지 않는다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치사하고 더럽지만, 그 과자 하나 얻어먹자고 그렇게 애를 쓰셨던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권사

님 손자들은 먹을 것이 생기면 우리 할머니도 드려야 한다고 들고 쫓아오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과자 하나, 사탕 하나. 그것이 얼마나 한대구요. 또 그거 하나 얻어먹는다고 배가 부르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부모를 공경하도록 가르치는 지혜입니다. 자녀를 넓은 마음으로 이해하는 것도 좋습니다. 참아주고 모른 척 해주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괜찮다, 괜찮다” 하며 무조건 넘어가는 것이 부모의 사랑은 아닙니다. 자식은 아무리 똑똑하고 많이 배워도 자식일 뿐입니다. 부모의 마음은 부모가 되어서야 알게 됩니다. 그러나 알았을 때에는 이미 때가 늦었다는 사실도 깨닫게 되면서 후회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됩니다.

자녀를 사랑하기에 더욱 부모를 공경하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뭘 바라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라도 자녀들의 공경을 받으셔야 합니다. 괜찮다고만 말씀하지 마시고 우리 부모님들께서도 자녀들에게 효를 행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뭐가 좀 먹고 싶은데 사 줄 수 있겠느냐고 물어도 보시고, 보고 싶으니 한번 시간 내어 오라고 부르기도 하십시오. 충분히 받을 자격이 있으시고, 또 받으셔야만 합니다.

저도 이 글을 쓰고 나서 부모님께 들려보아야겠습니다. 이젠 해달라는 말씀도 안 하시지만 괜히 앙상해 보이는 팔 다리도 주물러드리고, 옆에 앉아 잠시 말벗이라도 되어드릴까 합니다. 무수한 핑계로 효도하지 않는 자신을 그럴 듯하게 포장하며 살았던 것이 이 시간 몹시 부끄럽습니다. 더욱이 신앙을 핑계로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말씀에도 불순종했던 죄가 두렵기만 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핑계를 대지 않으려 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부모를 더욱 공경함으로 주님의 뜻을 받들겠다고 다짐합니다. 이 다짐이 오늘 저와 우리 모두의 다짐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